

## 서양 예수회 선교사가 청나라 궁정화가가 된 과정에 관한 선교학적 고찰 - 주세페 카스틸리오네(Giuseppe Castiglione)를 중심으로 -<sup>\*</sup>

김지인<sup>\*\*</sup>

### 논문초록

이 글은 유럽의 예수회가 청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궁정화가로서 활동하게 한 예수회의 예술 신학적 배경과 그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문화선교의 역사적인 예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7-18 세기에 이태리 화가로서 청나라에 가서 세 황제 아래서 50여 년간 궁정화가로서 활동했던 주세페 카스틸리오네(Giuseppe Castiglione, 1688-1766)의 삶과 예술을 유럽적 맥락과 중국적 맥락에서 고찰하였다. 먼저 유럽적 환경에서의 성장배경과 당시 예수회의 예술신학적인 배경과 예수회 평수사로서의 훈련과정과 청나라에 보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청나라 황제의 서양 문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과정을 알아보고 중국적인 문맥에서 청나라의 황제와 궁정이 서양에서 온 화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궁정화가로서 고용하여 이들이 어떤 제약된 환경에서 활동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당시 예수회 선교사들의 태도가 주도적이고 일방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청궁정의 예술과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황제와 중국인들과 서로 소통하려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본다. 또한 선교사들의 삶과 예술 활동을 통해 어떻게 만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청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 했는지를 추적하였다.

이들의 선교적 노력은 비록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고 개종자를 많이 늘리는 측면에서는 '실패한 선교'라고 하겠으나, 예수회의 예술신학을 가지고 전문적인 예술인으로서 선교지에 가서 예술을 매개체로 혹은 접촉점으로 하여 선교지의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중국인들과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려 했던 역사적 실례는 오늘날 개신교가 선교본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전하고 있는 문화선교 방식을 반성하고 돌아보는데 많은 점을 시사해 주리라고 본다.

주제어 : 예수회, 예술선교, 주세페 카스틸리오네, 청궁정화가, 문화선교

---

\* 이 논문은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 Kim Jean(2013). *Jesuit Missionary Giuseppe Castiglione's Mission and Artworks at the Qing Court: The Jesuits' Art Mission Policy and the Response of the Qing Chinese*. Ph.D. thesis. Yonsei University.의 일부 내용을 축약한 내용이며, 2015년 한국선교신학회 제 6차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한 글이다.

\*\* 연세대학교 선교학 박사

2016년 3월 10일 접수, 4월 11일 최종수정, 4월 18일 게재확정

## 1. 들어가며

요즘 한국 개신교에서는 해외 선교를 할 때 예술을 통한 선교를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다. 주로 복음전도를 위해 ‘예수’, ‘복음’에 관한 영화나 연극, 음악 혹은 무용을 현지인들에게 보여주며 선교하는 방식들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한국의 전통문화나 예술 등을 보여주거나 함께 하면서 이를 현지인과의 접촉점으로 삼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예술선교들은 대체로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이기 보다는, 선교 본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측면이 더 많다. 이러한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간과된 예술 선교방식은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한계를 드러내왔다.

그렇다면 이천 여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현지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려 노력했던 예술선교의 예를 찾아볼 수 있을까? 17-18세기 예수회의 예술 선교는 그 예를 보여준다. 사실 17, 18세기 중국 선교 사역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는 대체적으로 ‘제국주의의 선봉’에 서 있었다고 여겨져 왔다(이민호, 2009: 256). 그러나 당시 청나라에서 예수회 선교사의 상황은 ‘제국주의의 선봉’이라는 한 마디로 규정될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적 상황과 맥락을 지니고 있었다. 즉 청나라에서는 당시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특권적 지위를 누릴 수 없었고, 오히려 청나라 황제의 뜻과 기호가 서양의 문화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다시 말해서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갔을 때 복음과 함께 유럽의 문화를 그대로 전달할 수 없었고 먼저 청궁정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통해 황제와 청궁정의 기호에 맞게 다가가야만 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17-18세기 예수회의 해외 예술선교 방식과 당시의 맥락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17-18세기 예수회 평수사이자 화가로서 청의 궁정화가로서 50여년간 활동했던 대표적인 화가였던 주세페 카스틸리오네(Giuseppe Castiglione)의 삶을 추적해 볼 것이다. 그가 중국에 예술 선교사로 가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예수회가 당시 청이라는 현지 문화선교를 어떤 의도와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카스틸리오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양 미술사와 중국미술사 분야에서 그의 청궁정에서 그린 회화의 동서양 절충적 양식 부분에서 이루어져 왔다.<sup>1)</sup> 그러나 예수회 화가

이자 선교사로 청나라에 보내진 부분에 대한 문화 선교적인 측면과 예수회가 선교와 예술을 연결시킨 측면의 의의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sup>2)</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가 중국에 궁정화가로 가는 과정을 통해 그의 삶을 결정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예수회의 예술선교에 대한 당시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카스틸리오네에 대한 청 황실의 역사기록과 예수회 고문서실에 보관된 그에 관한 일차 자료들을 중심으로, 먼저 카스틸리오네가 유럽에서 전문화가로 훈련받고 예수회에 입회하게 되는 과정과 훈련받은 내용들을 살펴본다. 또한 그가 왜 선교지인 청나라로 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과정을 분석해 보겠다. 또한 그가 청나라에 갔을 당시 예수회 선교회와 청나라의 서양 예술과 종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그 곳에서 그가 청 궁정화가로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해 보겠다. 이를 통해 예수회가 회화에 조예가 깊은 선교사들을 보내려고 했던 예술선교의 다양한 맥락과 의미들을 한 번 되짚어 보면서 오늘날 개신교의 해외선교에서의 예술선교의 방식과 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도록 하겠다.

## II. 유럽에서 카스틸리오네

### 1. 밀라노: 전문화가로서 훈련

카스틸리오네는 1688년 7월 19일 이태리 밀라노의 상당히 지체 높은 가문에서 아버지 피에트로 카스틸리오네(Pietro Castiglione)와 어머니 안나 마리아(Anna Maria) 사이에서 태어났다.<sup>3)</sup> 19세에 예수회에 입회하기 전까지 어린 시절의 카스틸리오네는 밀

1) 서양인의 관점에서 쓴 미술사는 다음을 참고 Loehr, 1972: 33-42; Cécile and Michel Beurdeley, 1971: 6; Sullivan, 1973. 중국인의 시각에서 본 궁정화가에 대한 연구는 참고 Nie Chongzheng, 1998.

2) 이 분야에 관한 연구들은 참고 Musillo, 2006; Bailey, 1999; Corsi, 2003: 11.

3) 무실로는 'signore'라는 명칭이 그가 흔하지 않은 출생을 했음을 나타내준다고 주장한다. 당시 이러한 표현은 주로 고귀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중상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할 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유한 가정에서는 당시 대체로 가정에서 문학 공부등을 하거나 매우 좋은 기숙학교에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고 언급하였다. 참고(Pirazzoli-T'Serstevens, 2007: 19). 그의 가족관계는 로마에 있는 예수회 아카이브(ARSI)에 보관된 중국에 있던 예수회 소속 선교사들에 의해 카스틸리오네 사망 직후에 만들어진 기록인 *Memoria postuma*, 그리고 성 마르첼리노(San Marcellino) 성당의 세

라노에서 전문적인 미술교육과 문학과 같은 인문교육을 받았다(Musillo, 2006: 193).

당시 유럽의 예술 문화적 흐름을 살펴보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 개신교인이 다수를 차지했던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는 성상파괴 운동의 영향으로 16세기 이래 교회를 중심으로 제작된 예술들이 교회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정물화, 인물화 등의 새로운 장르가 출현하였다(이정숙, 2009: 39-58). 한편 이태리, 스페인 플랑드르 등의 가톨릭 국가는 가톨릭 개혁의 영향으로 중세이래의 성상옹호 전통의 흐름을 재천명하고 이어간 트렌트 공의회(1545-1563)에서 결의된 예술정책의 초기 영향에서 벗어나 폭발적이고 격정적 바로크 양식을 발전시키고 있었다.<sup>4)</sup> 따라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르네상스 바로크 예술이 궁전 예술과 더불어 여전히 활발하게 꽃피고 있었고, 밀라노 역시 이 영향 하에 있었다.

카스틸리오네는 무실로에 의하면 당시 유럽의 여러 화풍 중에서도 당대 밀라노에서 가장 유명한 화파였던 바로크 밀라노 화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진다(Musillo, 2006:47-89). 이러한 견해는 제노아에서 그가 그린 작품 <도비아와 라파엘 천사> [그림 1]와 밀라노 화파의 대표적 화가이자 그의 스승으로 여겨지는 인물인 필리포 아비아티(Filippo Abbiati)의 그림 <파도바의 성안토니우스, 밀라의 기적> [그림 2]을 비교해 볼 때 큰 무리가 없다. 즉 전체적인 화면에 빛과 어둠의 대조가 있고 중심인물을 크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를 빛으로 비추고 있고 주요 인물들은 확실하게 표현하는 대신 배경을 상대적으로 흐릿하게 표현하며, 옷의 질감 등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는 등의 공통된 특징을 볼 때 무실로의 주장은 신빙성 있게 여겨진다. 그가 화가로서의 교육을 받은 사실은 이후 그가 예수회에 입회할 때 이미 전문적인 화가의 재능을 가지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섬기는 평 수사(Brother Coadjutor)로서 입회하였음을 봐도 알 수 있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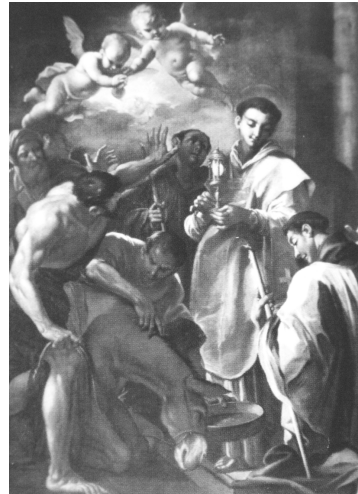
레명부 등에 기록되어 있다. 이에 관해서는 참고(Musillo, 2006: 14).

4) 트렌트 공의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예술정책에 대해서는 참고(김상근·김지인, 2009: 209-210)

5) 당시 평수사(Brother Coadjutor)는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예수회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섬겼다. 이들은 신부나 설교자를 지망하였던 회원들보다 종교적인 교육의 의무는 많지 않았다.



[그림1] 카스틸리오네,  
〈도비아와 라파엘 천사〉,  
1707-1709, 캔버스에 유화,  
Saint Hospice Martinez,  
제노아



[그림2] 필리포 아비아티,  
〈파도바의 성 안토니우스,  
밀란의 기적〉  
17세기 경, 밀라노

또한 그는 당시 밀라노에서 11월 4일에 보로메오 성인(St. Charles Borromeo)의 축일에 밀라노 두오모 성당 안에서 전시하는 성인의 이미지들을 통해 당대의 가장 유명한 화가들의 예술작품들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Musillo, 2006: 72). 또한 당시 유럽에는 중국에 대한 관심으로 중국의 도자기나 회화 등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카스틸리오네도 이러한 중국의 문화를 일찍이 접할 수 있었고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이 전문화가로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Musillo, 2006: 96-108).

## 2. 제노아에서 예수회 입회

이후 카스틸리오네는 1707년 제노아에 가서 예수회에 입회했다. 예수회는 규율이 상당히 엄격하고 하나님과 예수회 높은 사람들에 대한 복종을 중시하는 조직 이었고, 확실한 신학과 목적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는 단체였다.<sup>6)</sup> 예수회는 창시자 이나시오 로

6) 카스틸리오네와 같은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예수회에 입회한 평수사 들은 일반적으로 2년의 훈련기

율라의 중요한 모토인 “모든 만물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Finding God in All Things)”을 회원들의 삶과 사역의 목표로 삼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All for the glory of God)”라는 삶과 신앙의 태도를 지니고 사역에 임하였다.

카스틸리오네는 제노아에서 임시 보조자(temporal coadjutor)로서 이년간 훈련을 받았다. 당시 예수회 안에는 사제(priest)가 되려고 들어온 이들과 카스틸리오네와 같이 세속적인 일에 종사하면서 신부들을 돕는 일을 감당하는 평수사들이 있었다. 신부가 되려는 이들이 10여 년간에 걸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수도원에서 생활하며 신학교육을 받았던 데 반하여, 카스틸리오네는 예수회 평수사들 대부분이 그랬듯이 재능있는 특정한 분야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예수회의 기본정신을 배웠고, 종교적인 훈련을 의무적으로 많이 받을 필요는 없었다. 또한 그는 예수회에 입회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수련 수사(novice coadjutor)로서 임명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sup>7)</sup> 이것은 그가 예수회에 입회하는 동시에 이미 중국에 가서 감당해야 할 사역과 임무가 정해져 있었음을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유럽에서) 수련을 완전히 끝마치지 못하고 선교지인 청(淸)으로 가야만 했고 그 후 중국에서 수련의 나머지 부분들을 마쳤다”고 전해진다.<sup>8)</sup> 이러한 기록은 청에 그가 미처 예수회 훈련을 마치기도 전에 가야 할 급박한 상황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원래 유럽에서 만들어진 예수회의 정식 커리큘럼 안에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배우는 과목은 없었다.<sup>9)</sup> 하지만 카스틸리오네는 예수회에서 여러 가지 예수회 예술에 관한 신학을 접하고 그것이 적용된 예술작품들을 접하게 된다. 이냐시오 로올라에 의해서 시작된 <영신수련(Spiritual Exercises)>은 상상력과 오감을 이용하여 신앙심을 고양시키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적인 이미지(Spiritual Images)’라는 이론을 통해 마음에 신앙에 관한 혹은 하나님과 말씀에 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반영된 피조물의 은유적인 이미지들을 보고 기억하게 하여 신자들의 신앙심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여겼다(김지인, 2014: 75-105). 이러한 신학이 적용된 엠블럼(emblem) 북[그림3]은 기독교적 내용의 삽화와 그에 대한 해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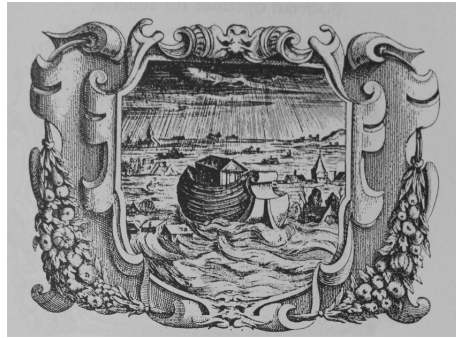
간을 마친 후에 ‘가난’, ‘자비’, ‘순종’의 세 가지 서약을 해야만 하였다.참고(Musillo, 2006: 20)

7) 참고(ARSI, Med.7, Mediol. Catalog. 1707-1713: 20).

8) *Memoria postuma*의 영문 번역은 참고(Musillo, 2006: 192-197).

9) 당시 예수회 정식 커리큘럼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면학규정(Constitution)(1556)과 *Ratio Studiorum* 이 있었다.

덧붙여져 있었다. 이러한 엠블럼 북은 예수회 대학에서 널리 사용되었고 카스틸리오네와 같이 해외에서 사역하기 위해 훈련받는 예술가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었다(Corsi, 2003: 11).



[그림3] 요하네스 볼란두스,  
플랑드르 벨기에 지방의 예수회의 최초  
이미지. 앤트워프: Baltasar Moretus, 1640,  
“Societas rebus,” p.574.

예수회 예술선교에서 원근법은 중요한 신학적인 함의를 가졌다. 르네상스 이래 사용되어져 왔던 원근법은 이차원의 평면에 3차원의 기하학적인 실재에 가까운 환영을 만들어 냈으므로써,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과 자연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는 하나의 예술적 시도였다(Chen, 2009: 110). 물론 예수회는 원근법이 적용된 좀 더 실재에 가까운 그림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나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되리라고 기대한 것은 아니었고, “피조물에 담긴 미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보았다(토마스 아퀴나스, 2008: 501). 해외 선교지로 나가는 카스틸리오네와 같은 예술가들도 수련생 기간에 당시 예수회 대학 등의 정식 커리큘럼 안에서 안드레아 포조의 책 『회화와 건축에 있어서의 원근법(Perspectiva Pictorum et Architectorum)』을 교재로 하여 원근법의 기초이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Corsi, 2003: 13-14). 이러한 원근법의 이론과 적용된 회화에 대해 청의 황제들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배우려 하였다.<sup>10)</sup>

이러한 예수회의 신앙심을 고양시키는 예술작품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훈련하는 환경 속에서, 그는 예수회 안에서 위임받은 그림을 그리는 일을 주로 담당 하였다. 그는 제노아에 있는 수련원 성당(novitiate church)에 두 점의 제단화와 식당에 필요한 여덟 점의 그림을 위임받아 그렸다. 예수회는 당시 아마추어 화가가 아닌 전문 화가들에게 예수회 건물 안에 그리는 그림들을 위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예수회에 입회하기 전에 이미 전문적인 화가였음을 증명해 준다. 제노아에서 그린 그림들은 신약과 구약 성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그림4], <르비담의 모세>, <도비아와 라파엘 천사> [그림1] 같은 장면들이다. 이러한 그림들은 금속적인 색채와 날카로운 외곽선의



[그림4] 카스틸리오네,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185 × 265cm, Saint Martinez  
Hospital, 제노아

의 표현 등으로 볼때 당시 바로크 밀라노 화파 특히 세라노(Cerano)와 같은 화가의 화풍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Musillo, 2006: 73).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그림 4]과 같은 그림을 보면 두 인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특히 하나님의 은혜나 임재가 임한 부분을 빛을 통해 표현하고 있으며 배경으로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고, 사마리아 여인의 옷 주름의 질감 표현이 매우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예수회에서 위임받아 그린 이러한 그림들이 트렌트 공의회(1545-1563)에서 결의된 도상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규정하고 제한한 영향을 일정부분 받았고, 예수회의 일원이었던 그 역시 이러한 영향 하에 그림을 그렸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10) 베이징에 있는 북당 도서관 책 목록에는 16-18세기에 들어온 서양의 원근법에 관한 책이 수십권 포함되어 있다. 이 책들의 목록은 참고(Chen, 2009: 112-114).

11) 트렌트 공의회에서는 기존의 가톨릭에서의 성화의 신앙 교육적인 기능과 신앙을 고양시키는 기능을 강조하였다. 참고(신준형, 2013: 91-116).



### 3. 포르투갈: 중국 선교를 준비하며 작업함

이후에 카스틸리오네는 중국이라는 선교지로 가기 위해 포르투갈의 코임브라로 향했다. 이는 그가 당시 포르투갈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당시 파드로아도(Padroado) 제도 하에서 중국이라는 아시아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는 포르투갈 배를 타고 리스본에서 출발해야만 했기 때문이다.<sup>12)</sup> 그는 4년 여간 출항을 기다리면서 예수회 성당 혹은 궁정에서 다양한 그림들을 위임받아 그렸다. 코임브라의 대학 내 병원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여왕의 아이들의 초상들을 위임받아 그리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로마의 예수회 총장이었던 미켈란젤로 탐부리니(Michelangelo Tamburini)에게 쓴 편지에도 잘 나타나 있다.

… 존경하는 관구장님께 올해는 중국에서 저에게 요구되는 선교를 위해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정말 가고 싶지만, 저는 여왕이 그녀의 두 어린 자녀의 초상화를 그려주길 원하는 마음을 먼저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안에서 이 모든 일이 요구되는 시간 안에 끝나쳐지길 소원합니다. 그럼 저는 출항할 수 있을 겁니다. 코임브라 성당의 작품들은 모두에게 만족스럽게 완성되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송구 스럽게도 단지 형제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말 밖에는 아무것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미천하고 무익한 아들, 주세페 카스틸리오네(ARSI,jap. Sin.175,220r).<sup>13)</sup>

이처럼 그는 중국에 가기 전에 이미 특수한 임무가 예수회 안에서 정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중국에 가기 위해 리스본에 머물렀으며, 당시 예수회 밖에서도 전문적인 화가로서 유명하였던 그는 포르투갈의 여왕에게도 그림들을 위임받아 그렸음을 알 수 있다. 1714년 마침내 중국을 향해 출항했다.

8월 20일 두 척의 포르투갈 배를 타고 고아를 출발해 마카오에 도달했다. 그들 중에는 17명

12) 15세기 신대륙 발견이후 로마교황청은 교구의 수립이나 선교사의 파견 등을 통한 포교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스페인과 포르투갈에게 지역을 나누어 통상 토지 독점권 교회 직위에 대한 보호권 등을 부여 하였다. 스페인은 필리핀과 아메리카 등에서 주로 활동 하였고, 포르투갈은 인도 일본 중국 등에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였다.

13) 저자의 번역. 당시의 포르투갈의 여왕은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안나(Maria Anna of Austria)였다. 그녀의 두 자녀는 1711년 생, 마리아 바바라(Maria Barbara), 그리고 1712년에 태어난 피터(Peter)였다.

의 예수회 사람들, 즉 15명의 신부들과 두 명의 평수사가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이태리인이었다: 카스틸리오네는 밀라노 출신의 화가였고, 평수사 주세페 코스타(Giuseppe Costa)는 네이플 출신의 약사이자 외과 의사였다. 그들의 관구장은 그들이 강회제를 위한 선물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Biblioteca Casanatense, Manuscript 1630.1715: 146r-152v.,149r.).<sup>14)</sup>

이에 따르면 그는 중국으로 가도록 명을 받은 여러 명의 예수회 신부들과 한 명의 의사와 함께 리스본을 출발하여 고아를 거쳐 마카오에 도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구장 신부는 처음부터 이들을 궁정에 가서 화가와 의사라는 자신들의 재능을 가지고 황제를 섬기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이를 미리 준비시킨 것을 알 수 있다.

### III. 중국으로 간 카스틸리오네

#### 1. 청황제의 서양 종교와 예술에 대한 입장

카스틸리오네는 마카오(澳門)와 광저우(廣州)를 거쳐 1715년 27세에 중국 베이징에 도달 하였다. 그가 베이징에 도착할 무렵 강희 황제치하의 청나라는 ‘전례논쟁’에 휩싸여 있었다. 즉, ‘중국어로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공자와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의식에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작게는 가톨릭교회의 각 수도회 사이에, 크게는 교황청과 강희제 사이에 첨예한 이견을 보여 심각한 대립관계에 들어서고 있었다. 강희제는 1692년경에 청 황실과 우호적 관계를 가졌던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 1623-1688) 등의 영향으로 가톨릭교회를 인정하고 중국 선교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우호적 교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가톨릭의 각 수도회 사이에 분열이 있었고, 이러한 분열을 막기 위해 교황 사절은 1704년과 1707년 예수회 선교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 하였다. 1715년 교황 클레멘스 11세에 의해 발표된 교서와 1742년에 발표된 베네딕토 14세의 교서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중국어에서 찾아보려 하고 제사 참여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존중으로 보고자 했던 예수회의 적응주의적인 정책이 묵살 되었다.<sup>15)</sup> 강희제는 전례에 대한 교황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14) 저자의 번역.

15) 하경심은 17-18세기의 중국 전례논쟁에 대해 ‘교황청과 중국황실의 직접적인 충돌로 반그리스도교

반발하여 1721년 그리스도교 금교령을 내렸다. 이어진 중국의 반그리스도교 운동은 17-18세기에는 집권층의 박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집권하는 과정에서 서양 선교사들의 후원을 받던 다른 왕자들과 경쟁했던 옹정제는 집권초기부터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다(양광선 외, 2013: 35).

이와 같은 반기독교적인 정서에도 불구하고 청나라 황제들은 서양의 예술 기법과 최신 학문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와 관심을 보여주었다. 카스틸리오네가 활동했던 당시의 황제였던 강희, 옹정, 건륭제 역시 상당히 전문적인 예술적 감식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서양 선교사들이 가져온 그림에 나타난 원근법과 명암법에 대해서는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강희황제는 중국에 있던 가톨릭 선교사들에게 유럽에서 서양의 원근법을 적용하여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들을 불러오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청 황제들의 서양 예술에 대한 관심은 명 말에 중국에 온 예수회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 1552-1610) 이래로 선교사들이 가져온 그림들을 접하면서 서양의 예술 기법들이나 최신 학문들에 대한 관심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카스틸리오네가 활동하기 이전에도 중국궁정에서 루이지 부글리오(Luigi Buglio, 1606-82) 신부, 찰스 데 벨빌(Charles de Belleville, 1656-1700경 이후 사망) 수사, 크리스포로 피오리(Crisforo Fiori, 1694-1705) 수사, 지오반니 게라르디니(Giovanni Gherardini, 1696-1707) 수사 등이 서양인 궁정화가로 활동하고 있었다(Beurdely, 1971: 194-197).

카스틸리오네 당시에 청의 궁정화가들은 추천에 의하여 궁정 화원에 들어갔다.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임무를 담당한 당시 예수회와 포교성성에서는 청 궁정에 아마추어 화가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유럽으로부터 카스틸리오네와 같은 뛰어난 기량의 검증된 전문 화가들을 준비시켜 보냈다. 카스틸리오네와 동시대에 활동한 서양 궁정화가로는 카스틸리오네만이 아니라 장 드니 아티레(Jean Denis Attiret, 1702-1768) 신부, 주세페 판치(Giuseppe Panzi, 1734-1811) 신부, 피에르 마샬 치보(Pierre Martial Cibot, 1727-1781) 신부, 루이 데 포이로(Louis de Poirot, 1735-1814), 미셸 베노이스트(Michel Benoist, 1715-74) 신부, 이그나티우스 지헬바르트(Ignatius Sichelbart, 1708-80) 신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소속 지오반니 다마세도 살루스티

---

운동의 논리적 발전이나 반그리스도교 이론의 제기를 통한 신앙의 토착화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불러왔다'고 보았다. 참고(양광선 외, 2013: 33-34).

(Giovanni Damasceno Sallusti, -1781사망) 등이 활동하고 있었다(김상근·김지인, 2009: 227-228). 이들은 주로 이태리와 프랑스 독일 등에서 뽑혀온 화가이자 선교사들이었고, 수사와 신부의 구분 없이 궁정에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서양의 기법을 청 궁정화가들에게 가르치기도 했고 중국의 화법을 배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청황제의 서양 예술에 대한 관심 가운데에서 카스틸리오네가 베이징에 도착했다.

## 2. 궁정화가로서의 활동

카스틸리오네는 중국에 도착하여 낭세녕(郎世寧)이라는 중국이름을 부여받았다. 그는 당시 포르투갈 예수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따라서 베이징에서 포르투갈 소속 예수회 본부였던 동당(東堂, St. Joseph Mission)에 머물렀다. 1715년 11월에 카스틸리오네는 마테오 리파(Matteo Ripa, 1682-1746)신부의 통역의 도움을 받아 강희 황제를 알현했다. 리파는 카스틸리오네가 강희 황제와 첫 대면한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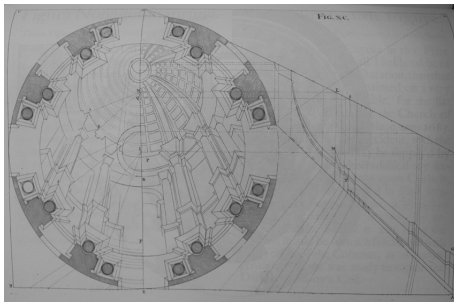
카스틸리오네가 북경에 도착하자 그의 명성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강희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황제는 카스틸리오네가 심지어 우리(예수회 선교사들)를 만나기도 전에 자신이 직접 이러한 매우 화려한 기교를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도시(베이징)에 있을 때 황제는 카스틸리오네에게 그의 앞으로 나오도록 명하였다. 단도직입적으로 [황제는] 카스틸리오네에게 새를 그려보라고 하였다. 카스틸리오네가 이 명에 따라 그렸는데 너무 잘 그려서 황제는 이것이 살아있는 것인지 혹은 그린 것인지 궁금해 하였다. 그의 신하들이 궁정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추천하는 것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 황제는 몇몇 제자들을 선택하였고 카스틸리오네를 그들의 스승으로 임명하였다(*Memoria postuma*, 92r.).<sup>16)</sup>

이러한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강희 황제는 서양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전문적인 화가들을 불러오라고 중국에 있는 예수회 선교사들에게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예수회 유럽 본부는 카스틸리오네와 같은 전문적인 화가들을 뽑아서 중국에 보냈다. 그는 그의 그림을 직접 보고 그 실력을 인정한 황제의 명으로 자금성에서 궁정화가로 임명되었다. 이후 그는 강희(康熙, 1662-1722), 옹정(雍正, 1722-1735), 건륭(乾隆, 1736-1795) 세 황제 밑에서 50여 년간 궁정화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카스틸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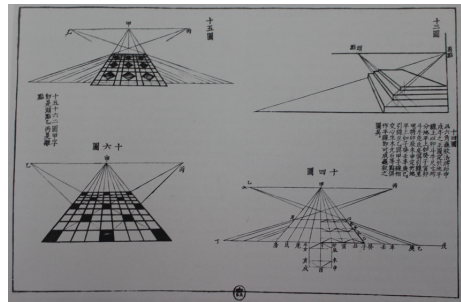
16) 저자의 번역.

네는 궁정에 소속된 여러 공방에서 작업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궁정화가의 스튜디오인 여의관(如意館)과 양심전(養心殿) 안의 조판처(造辦處), 그리고 화원처(畫院處) 등에서 작업하며 보냈다. 그는 동당과 베이징 안에 여의관 등에 머물렀다. 여기서 그는 궁정화를 그렸고, 원명원(圓明園)이라는 서양의 바로크 로코코 양식과 중국전통양식이 결합된 건축물의 일부를 설계하였으며, 당시 도자기에 들어가는 밑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

카스틸리오네는 황제의 명에 따라 원근법을 청 궁정 화가들에게 가르쳤다. 또한 연희요가 안드레아 포조의 원근법 책 『그림과 건축에서의 원근법(Perspectiva Pictorum et Architectorum)』 [그림5]을 중국말로 번역하여 <視學>이라는 책 [그림6]으로 내는 일에도 도움을 주었다. 이것은 유럽에서 그가 받은 예수회 안팎에서의 원근법에 대한 이론과 실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림5] 안드레아 포조,  
〈건축과 회화에서의 원근법〉 도.XCII.



[그림6] 카스틸리오네와 연희요 <視學>,  
Bibliothèque Nationale, 파리

중국궁정에서 그는 회화 작품을 그렸고 백여 점이 남아있다. 그는 주로 전통적으로 청 궁정에서 많이 그려지던 인물화, 동물화, 꽃과 나무, 산수화, 역사화 등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렸다. 기법적으로는 서양의 원근법과 명암법 등을 중국의 전통적인 회화의 체제를 가지고 황제가 허락하는 만큼 적용하여 그렸다. 특히 그가 사용한 음영법은 새로운 수법으로 중국 회화에 영향을 끼쳤다. 그의 그림에는 이러한 기법들이 적용되었음이 나타나 있다. 옹정황제 시대에 카스틸리오네의 그림으로는 적어도 세 점이 알려져 있다. <취서도(聚瑞圖)> [그림7]와 <매, 소나무, 버섯>그리고 <백준도(百俊圖)> [그림8] 등이다.

<취서도> [그림7]는 그가 궁정에 간 초기에 그렸던 작품인데 후기의 작품에 비해 화병 등에 서양의 입체감과 음양법이 많이 보이고 꽃들도 서양의 정물화처럼 꺾어온 것 같은 꽃들이 자유분방하게 꽃혀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제는 중국에서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꽃들을 꽃아놓아서 새로 황제가 된 옹정황제의 제위가 영원할 것과 그의 건강과 장수를 비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백준도> [그림8]는 백 마리의 말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그림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말들은 당시 청나라 주변의 조공국들이 조공으로 바친 말들로서 황제가 다스리는 세계속에 조공을 바친 나라들도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여기서도 배경의 풍경화나 말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서양의 사실적 화풍과 음영법 그리고 동양적인 화풍이 혼합되어 있었다.



[그림7] 카스틸리오네  
〈취서도〉 1723,  
견본채색, 173×86,  
대만 고궁박물원, 대만



[그림8] 카스틸리오네  
〈백준도〉, 세부, 1728, 견본채색 94×776cm,  
대만 고궁박물원, 대만

건륭 역시 카스틸리오네의 그림을 매우 좋아하였다. 특히 황제의 초상화나 말 그림 등을 서양화법과 중국화법이 혼합된 양식으로 그에게 그리도록 하였다. 서양화법은 황

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황제의 초상, <짐의 마음에는 평화롭게 통치할 힘이 있다> [그림9]를 그릴 때, 황제의 용상(얼굴)에는 명암법을 넣지 못하도록 했다. 황제의 얼굴은 양(陽)으로 표현하고 음(陰)이 들어가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황제는 카스틸리오네가 자신의 얼굴에 그려놓은 그림자를 중국인 화가에게 제거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카스틸리오네는 그의 명령에 따라야만 했다 (Musillo, 2006: 173).



[그림9] 카스틸리오네  
 <짐의 마음속에는 평화롭게 통치할 힘이 있다>  
 (건륭 초상, 세부). 건본채색. 0.53× 7.79m,  
 Cat.81. 클리블랜드 미술관, 클리블랜드, 오키오

이런 그의 그림들은 중국 정통 문인화와 비교해 볼 때 자연과 인물, 사물에 마치 ‘거울을 바라보는 것 같은’ 사실감을 부여하였다. 카스틸리오네는 원근법을 사용한 그림을 궁정에도 그리고 궁정 밖에서도 그렸다. 즉 원근법이 적용된 실재와 더욱 가까운 자연과 인물의 모습을 재현하고, 이를 중국화 기법과 혼합하여 하나님의 피조물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문화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적응노력을 하였던 것이다. 이는 청 궁정에서 카스틸리오네와 같이 일하였던 서양화가들의 그림 작업을 통해 예수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였던 예수회의 예술선교의 다른 적용 모습이었다.

서양인 궁정화가들은 궁정소속이라는 제한된 작업 환경 속에서 선교사로서 화가로서 아무런 갈등 없이 작업한 것은 아니었다. 카스틸리오네는 자신의 궁정화가로서의 삶에 대해 신앙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그의 생

각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기록은 없고, 다만 그의 동료였던 장 드니 아티레는 이러한 궁정화가로서의 고된 일상에 대한 예술가로서의 신부로서의 고뇌를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 하루도 자유롭지 못하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일이나 축일을 지킬 수 없다.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도 나의 개성이나 기량을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다. 내가 해야 하는 수천가지의 잡다한 일들을 여기에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다. 만일 내가 나의 그림 그리는 일이 이 종교(기독교)에 도움이 되는데 유용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들(중국인들)에게 설교하는 선교사들에게 황제가 더 호의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난 벌써 유럽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여기 있도록 하는 유일한 매력이고 다른 유럽인들이 황제를 섬기게 하는 원인일 것이다(*Lettre édifiantes*, 22, 412 ff(Attiret, 1742)).<sup>17)</sup>

아티레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기 힘든 이러한 궁정화가로서의 삶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하는 작업이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비슷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었던 카스틸리오네도 비록 수사였지만 분명히 이러한 신앙적인 어려움과 갈등을 가지고서 예술 작업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이들의 궁정화가로서의 힘든 작업과 자유가 없는 일상생활을 견디지 못해 자진하여 황제의 허가를 받아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림 실력이 떨어지는 화가들은 궁정에서 쫓겨나 다시 본국으로 소환되기도 하였다(*Lettre édifiantes*, 22, 412 ff(Attiret, 1742)).<sup>18)</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카스틸리오네는 그의 실력이 황제들의 인정받아 50여 년 간 궁정에서 활동하였다.

또한 예수회가 청궁정에 카스틸리오네와 같은 화가들을 보낸 것은 전례논쟁으로 당시 청나라에서의 예수회 선교활동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카스틸리오네는 날마다 그의 그림을 그리는 작업실에 들렀던 건륭 황제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회 사람들을 변호한다.

12월 14일 아침 열시에 황제가 부지런히 작업을 하고 있는 카스틸리오네 수사에게 찾아왔다. 그는 그에게 그림에 관한 많은 질문을 했다. 그는 전날에 주어진 명령에 대한 슬픔과 비통함에

17) 저자의 번역.

18) 저자의 번역.



압도되어, 그의 눈을 낮추고 대답할 힘조차 없었다. 황제는 그가 아프냐고 물었다. “아닙니다. 폐하”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는 그는 무릎을 꿇었다: “폐하, 당신은 우리의 거룩한 종교를 비난합니다. 저자에는 이러한 (내용을) 적은 전단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폐하를 차별하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희 종교를 너희 유럽인에게는 금지하지 않았다.” 하고 중국 황제가 말했다. “너희들은 자유롭게 그것을 믿을 수 있지만 우리 중국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Lettre édifiantes, 22 (Etat de la religion en 1738): 219f.).<sup>19)</sup>

그러나 목숨을 내건 이러한 예수회를 위한 그의 노력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 3. 궁정 밖에서의 사역

카스틸리오네는 이처럼 청 궁정 안에서 주로 작업 하였지만 궁정 밖으로 나오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밖에서도 작업을 하였다. 궁정 밖에 머물 때는 청궁정에서와 다르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전에 유럽에 있을 때 예수회에서 했던 예술작업을 했다. 비록 현재는 작품이 남아있지 않지만 남당(南堂)에 선 원근법을 적용하여 두 개의 캔버스에 그린 그림과 두 개의 벽화를 그렸다는 기록과 동당의 큐폴라(Cupola) 부분에 사실적인 돔(Dome)을 꾸몄다는 기록으로 부터 포조의 특징적인 원근법 표현양식인 진짜와 유사한 도움(false dome)을 재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20)</sup> 또한 그의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따라서 저는 형제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수년간 저는 다양한 그림(값어치가 확실히 없는)을 제작하였는데 저는 그중에 일부의 아직 전 단계 드로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드로잉으로 선교에 사용될 그림을 만드는 동판화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판화로 책 한권이 만들어지면 이 기법에 대한 약간의 도움말과 자료를 덧붙여서 (만일 이것이 저에게 유용하다면) 유럽에서 회화 기법에 초보자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훌륭한 동판화가로서, 저는 페르디난도 모기(Ferdinando Moggi, 1684-1761)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숙소에 살고 있고, 총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 작업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내가 형제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작은 사역을 완수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내

19) 저자의 번역.

20) 남당에 그렸던 작품에 관한 기록은 참고(Ishida, 1960: 101-103) 동당의 작품에 관한 기록은 참고(Musillo, 2006: 122-123).

가 주안에서 바라는 대로, 그것이 잘 받아들여져서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이것은 매우 유용하고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고 혹 적어도 유럽에서 신앙심이 깊은 행위나 고상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경건한 작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선교의 이득을 위해 종교적인 사역에 사용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이 이익을 반으로 나누어 우리 둘이(형제님이 허락하신다면) 반절을 우리 선교의 많은 이익이 될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든 아까 말한 반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만드는 비용은, 내가 모은 자선기부금을 사용할 것이다. 비록 충분하지 않겠지만...<sup>21)</sup>

1729년 11월 14일 북경에서

이 글을 보면 카스틸리오네가 자신이 베이징에서 그린 드로잉을 판화로 제작하여 유럽의 예술을 배우려는 초보자들에게 팔려는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이익금이 생기면 예수회 본부와 중국 선교비로 나누어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그가 판화로 만들려고 하는 그림이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 모든 작업이 경건한 행위라고 믿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예수회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혹은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역에 대한 기본 생각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그의 편지를 통해 그가 베이징에서도 유럽에서의 예술을 통한 선교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가 그린 이 그림은 비록 일반 그림이지만 그는 이 일이 선교와 자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믿었다. 또한 이러한 모든 프로젝트의 기획과 진행은 본국의 총장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음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 편 그는 예수회를 창시한 <이그나티우스 로올라의 초상>이나 <하비에르 성인>의 그림들을 그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진작은 남아있지 않으나 클라우버(Klauber)가 그의 그림을 모작한 판화그림 [그림10]을 통해 알 수 있다(Beurdeley, 1971: 155).



[그림10] 클라우버,  
〈St. Ignatius Fund S.J.〉  
카스틸리오네 그림의 모작,  
북경, Archivum Romanum  
Societatis Iesu, 로마

21) 저자의 번역.

이 그림을 유럽에서 받아본 예수회 총장 루이지 센투리온(Luigi Centurione)신부는 카스틸리오네에게 1755년에 쓴 편지에서도 ‘당신이 붓질은 섬세하고 왜 당신의 그림을 동판으로 모사하도록 하였는지를 알겠다 하면서 이 그림이 유럽 신자들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잘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그는 궁정 안에서는 성화를 그리지 못하였지만 궁정 밖에서는 자신이 유럽에서 했던 작업들을 그대로 했다. 그는 이처럼 궁정화가로서의 삶을 살면서 궁정의 안팎에서 선교사이자 화가로서의 삶을 살다가 1766년 7월 16일에 78세의 나이로 베이징에서 사망 하였다.

#### 4. 카스틸리오네의 중국 예술 선교의 의의

카스틸리오네의 유럽과 중국에서의 작품 활동과 생애를 돌아보면서, 예수회의 중국에서의 예술 선교활동과 그의 삶이 예술선교에 가지는 의의에 대해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그가 예술가로서의 뛰어난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섬겼다는 점이다. 그는 청 황제의 서양의 화법에 대한 관심과 요청에 의해 예수회를 통해 전문적인 화가로서 중국에 보내졌고 궁정화가로서 오십여 년간 강희, 옹정, 건륭의 세 황제 밑에서 봉직하였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박해받고 순교하던 당시 상황 속에서 세 황제들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화가로서의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러한 그의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그는 궁정의 작업실 안에서 거의 매일 황제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가 비록 드러내어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화가로서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기독교에 반감을 갖고 있는 황제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은 오늘날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슬람권의 선교를 위한 전문인 사역의 하나의 좋은 예를 보여준다고 여겨진다.

둘째, 그가 중국예술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겠다. 카스틸리오네는 서양에서 청궁정에 와서 활동했던 청궁정화가들 중에서 동서양의 혼합적인 화법으로 그렸던 가장 유명한 화가로서 중국미술사에 기억되고 있다. 그가 청궁정에서 주로 그렸던 그림들은 서양의 원근법과 음양법 그리고 사실적인 표현기법으로 중국적인 제재를 중국화의 양식과 혼합하여 그렸다. 카스틸리오네의 이러한 절충적인 화법은 서양의 문화와 중국의 문화가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상호작용한 역사적 흔적이라 생각된다. 물론 서양의 화법은 청

의 황제가 허락하는 만큼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제한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림 작품 안에서 서양의 문화와 중국의 문화가 서로 만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었다고 여겨진다.

셋째, 이러한 카스틸리오네의 예술선교방식에 영향을 끼친 예수회의 예술선교 신학은 예술에 복음의 내용을 담아 전하는 기존의 예술선교와는 다른 방식의 선교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즉 예술의 내용에 복음을 담아 직접적으로 전하지는 않지만 서양의 문화와 화법에 관심을 갖고 있던 청 황제에게 궁정에 들어가 서양의 화법을 원근법등을 소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화법을 배우는 과정을 접촉점으로 하여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여는 다른 차원의 예술선교방식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술선교방식은 예수회 선교의 중심모토였던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발견하도록 하는(Finding God in All things)’ 그들의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 카스틸리오네가 당시 중국 선교사들과 황제들과 그의 동료였던 중국궁정화가들로부터 ‘거룩한 사람(Holy Man)’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이다(Musillo, 2008: 54-57). 그가 기독교 박해의 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경건하고 훌륭한 인격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점이라 하겠다. 복음이라는 것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 전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훌륭하고 구별된 인격과 성품을 통해 삶으로 드러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카스틸리오네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와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그러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생애 자체가 선교적인 의의를 가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 IV. 나가며

예수회는 서양의 예술과 기법에 관심을 가졌던 청황제의 요청에 따라 카스틸리오네와 같은 전문예술가를 청황실로 보냈다. 카스틸리오네는 선교지인 청나라 궁정에 가서 그들의 문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는 청의 궁정화가로서 그들의 문화를 먼저 배우고 이해하려는 자세로 예술 작업을 하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에 처한 예수회를 위해 중재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베이징에 있는 그의 묘비 [그림11]에는 중국에 와서 살았던 그에 대한 예수회와 청궁정의 각기 다른 측면에서의 평가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먼저 비석의 왼쪽 부분에는 라틴어로 새겨져 있다.

가장 위대한 최고의 하나님, 이태리 밀라노 출신의 주세페 카스틸리오네는 예수회의 전임 수사로서, 1715년 황제의 명에 의하여 북경에 왔다. 50여 년간 궁정에서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는 유럽에 커다란 영예를 안겨 주었고, 선교에 놀랄만한 업적을 남겼다. 또한 그는 매우 탁월하게 종교적인 완벽함을 추구하였고, 예수회에서 59년 반을 보내고, 주후 1766년 7월 16일에 78세의 나이로 경건하게 이 세상을 하직 하였다.<sup>22)</sup>

비석의 오른쪽에는 중국어로 다음과 같이 써어져 있다.



[그림11] 카스틸리오네의 묘비, 북경, 자란(Zhalan)

건륭 31년 6월 10일에 황제의 명이 다음과 같았다: 강희황제가 통치해 온 이래 낭세녕은 황제의 궁에서 성실하게 봉직하였고 이미 삼품정대(三品頂帶)를 하사 받았다. 오늘 당신은 병환으로 세상을 하직 하였다. 수십 년간 궁정에서 (행한) 당신의 공로를 회상하고 당신이 거의 여든 살에 가까운 사실을 감안하여, 우리는 당신에게 이그나티우스 궤글러(Ignatius Kögler(戴進賢) 1680-1746)에게 행한 전례에 따라, 장례식 비용을 치르고 우리의 애도와 측은지심을 보여주고자 시랑(侍郎)의 직함과 궁정의 금고에서 300량의 은을 수여한다. 이것이 우리의 명이다.<sup>23)</sup>

이 두 내용에 의하면 그의 삶이 예수회에 의해서는 훌륭한 그림을 그림으로써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충분히 다한 것으로, 청 궁정에서는 훌륭한 궁정화가로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삶 가운데서 선교지의 문화에 대한 존중, 낮아진 자세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당시 상황이 직접적으로 선교하기

22) 저자의 번역.

23) 저자의 번역. 이그나티우스 궤글러는 독일출신의 예수회 선교사이자 신부로서 1696년 예수회 입회하고 1714년 사제서품을 받고 1717년 중국에 와서 강희제 부름으로 북경에 가서 천문역산지리서(天文曆算地理書)편집에 참여함. 1720년에는 조선(朝鮮)서 온 주청사(奏請使), 이신명(李頤命) 등을 만나 서양의 역산 지리 종교 등에 대해 담론하기도 함. 1725년 서양인 최초로 흠천감감정(欽天監監正)이 되어 사망할 때까지 종사함. 1731년 예부시랑(禮部侍郎)등을 역임함.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스틸리오네의 삶은 우리에게 예술 문화 선교와 전문인 선교에 대한 예를 보여준다. 우선 그는 전문화가로서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선교지인 청궁정에 가서 화가로 활동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선교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선교적 삶을 살았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되고 훌륭한 인품으로 황제와 주변동료들을 감화시켰다. 이러한 전문성과 성화된 인격을 드러내는 선교사로서의 삶은 오늘날의 전문인 사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박해나 핍박은 없지만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카스틸리오네와 같이 전문성과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선교지에 있다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접촉점을 마련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예수회의 예술선교적 신학과 전략에 따라 선교지에 보내져 선교현지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가가려 했던 카스틸리오네의 노력은 신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피조물의 모습으로 낮아져 그들의 문화의 옷을 입고 사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선교사들 또한 현지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선교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필사본

- Archivum Romanum Societatis Iesu*(ARSI), Rome.  
Biblioteca Casanatense, Manuscript, (1630.1715): 146r.-152v.,149r.  
*Catalog. Breves et Triennales*, (1621-1769) Japan. Sin. 134.  
*Catalogus brevis provinciae mediolanensis anni MDCCVIII*, (1707-1713) Genuensis  
Domus Probationis, Med. 7.  
*Epistolae Joesphi Panzi*, (1773-1795) Jap. Sin. 185, 79-86.  
Jap.Sin.175, 220 r.  
Jap.Sin. 176, 383-385.  
Jap.Sin. 183, 212, 213.  
Jap.Sin.184, 41 r/v.  
*Memoria postuma*, ARSI, Bras. 28, 92r-93v.  
*Soli Sinensis*, Jap. Sin.99, 45v.

### 일차자료

-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65-73). *Summa Theologica*. 정의채 역  
(2008). 『신학대전』. 1권. 서울: 바오로 딸.  
楊光先. (1664). 不得已. 안경덕 · 김상근 · 하경심 역 (2013). 『부득이:17세기 중국의  
반기독교 운동』. 서울: 일조각.  
馬國顯(Ripa, M.).京庭十有三年記, Prandi, F.(Trans.) (1855). *Memoirs of Father  
Ripa: During Thirteen years' Residence at the court of Peking in the service  
of the Emperor of China*. John Murray, Albemarle street.  
*Lettres édifiantes et curieuses écrites des missions étrangères* (1810). *Memoires  
de la Chine*. Nouvelle édit. Noël-Etienne Sens et Auguste Gaude, Toulouse.  
Pozzo, A. *Perspectiva pictorum et architectorum/Prospettiva De'Pittori, ed  
architetti D'Andrea Pozzo della Compagnia di Gesu*, double text Latin/Italian,  
Rome, (1741)vol.I,(1758)vol.II.  
\_\_\_\_\_. (1989). *Perspective in architecture and painting: An Unabridged Reprint  
of the English-and-Latin Edition of the 1693 "Persepectiva Pictorum et  
Architectorum"* New York: Dover Publications.

## 이차자료

- 김혜경 (2012). 『예수회의 적응주의 선교: 역사와 의미』.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신준형 (2007). 『루터와 미켈란젤로』. 서울: 사회평론.
- 이민호 (2009). 『동서양문화교류와 충돌의 역사』. 서울: 한국학술정보.
- Bailey, G. A. (1999). *Art on The Jesuit Missions In Asia and Latin America: 1542-1773*. Totonto/Buffalo/Lond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_\_\_\_\_ (2003). *Between Renaissance and Baroque: Jesuit Art in Rome, 1565-1610*.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Cahill, J. (1979). *The Compelling Image: Nature and Style in Seventeenth Century Chinese Painting*.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écile and Beurdeley, M. (1971). in Bullock, Michael (trans.), *Giuseppe Castiglione: A Jesuit Painter at the Court of the Chinese Emperor*. Rutland/Tokyo: Charles E. Tuttle Company.
- Ishida, M. (1960). *A Biographical Study of Giuseppe Castiglione(Lang Shih-ning): a Jesuit Painter in the Court of Peking under the Ch'ing Dynasty*. (Vol.XIX, 101-103) Tokyo: Memoirs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o.
- Jean, K. (2013). "Jesuit Missionary Giuseppe Castiglione's Mission and Artworks at the Qing Court: The Jesuits' Art Mission Policy and the Response of the Qing Chinese." Ph.D. Thesis. Yonsei University.
- Loehr,G.R. (1972). "European Artists at the Chinese Court." *The Westward Influence of the Chinese Arts from the 14th to the 18th Century. Art & Archeology in Asia* (3). London: Percival David Foundation of Chinese Art, Londres. 33-42.
- Musillo, M, (2006). "Bridging Europe and China: The Professional Life of Giuseppe Castiglione (1688-1766)." University of East Anglia, Ph.D.
- Chongzheng, N. (1998). *Lang Shining*. Beijing: Wenwu Chubanshe
- O'Malley, J., Bailey, G. A., Steven, J. H., Kennedy, T. F(Eds.) (1999). *The Jesuits I, II: Cultures, Sciences, and the Art*.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O'Malley,J., Bailey G. A., Alexander, S.J., Giovanni, S.(Eds.). (2005). *The Jesuits and the Arts 1540-1773*. Philadelphia: Saint Joseph's University Press.
- Pirazzoli-T'Serstevens, M. (2007). *Giuseppe Castiglione: 1688-1766 Peintre et architecte à la cour de Chine*, Ouvrage publie avec le concours du Centre



- national du liver. Paris: Thalia Edition.
- Richard, D. G. (2007). *Studies in the Jesuit Emblem*, New York: AMS Press.
- Standaert, N.(Ed.) (2001). *Handbook of Christianity in China. Vol. One: 635-1800*. Leiden: Brill.
- Sullivan, Michael (1979). *Symbols of eternity: The art of landscape painting in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73). *The Meeting of Eastern and Western Art: From the Six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Day*. New York: Graphic Society Ltd.

## 저널

- 김상근 · 김지인 (2009). “예수회 선교사를 통해 중국과 일본으로 전래된 서양화법 (西洋畵法): 동서미술 교류사의 선교학적 연구를 위한 제안.” 『신학논단』. 57. 199-239.
- 김지인 (2014). “예수회 예술신학이 중국선교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선교신학』. 37. 75-105.
- 이정숙 (2009). “예배에서 일상의 기쁨으로: 칼빈, 칼빈주의 그리고 시각미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5. 39-58.
- Arnold, L. (2003). “Of the Mind and the Eye: Jesuit Artists in the Forbidden City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Pacific Rim Report* 27. 1-9.
- Hui-Hung,C. (2009). “Chinese Perception of European Perspective: A Jesuit Case in the Seventeenth Century.” *The Seventeenth Century* 24(1). 97-128.
- Corsi, E. (2003). ““Agreeable yet useful”: Notes on Jesuitical Visual Culture during the Seventeenth Century.” *Pacific Rim Report* 27. 9-16.
- Dulles, A. (1991). “Jesuit’s and Theology: Yesterday and Today.” *Theological Studies* 52. 524-538.
- Loehr, G. R. (1961). “Giuseppe Castiglione: Missionary painter in the service of Three Manchu Emperors.” *The Emory University Quarterly* 17.
- \_\_\_\_\_ (1962). “Missionary Artists at the Manchu Court.” *Transactions of the Oriental Ceramic Society* 34. 51-67.
- Musillo, M. (2008). “Reconciling Two Careers: The Jesuit Memoir of Guiseppe Castiglione Lay brother and Qing Imperial Painter.” *Eighteenth Century Studies* 42(1). 45-59.

## Abstract

# Western Jesuit Missionary's Dispatch and Activities in Qing Court : A Missiological Case Study of Giuseppe Castiglione

Jean Kim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historical cultural mission case by looking into the Jesuits' art theological background and the dispatch process of the European Jesuits to the Qing court as court painters. This paper specifically focuses on the life of Giuseppe Castiglione who was an Italian Jesuit painter in the 17<sup>th</sup> and 18<sup>th</sup> century and was sent to Qing as a Qing court painter for about fifty years under the rule of three Emperors.

His life and artwork need to be approached both from European and Chinese contexts. In European context, this paper explores his growing background, Jesuits' art theology and art mission strategies during his period and his dispatch process to Qing court. In Chinese context, the paper looks into Qing Emperors' favor of the western culture and Qing Emperors and court's interactions with western Jesuit court painters who worked under the limited and restricted Qing court.

These two contexts reveal that Jesuits missionaries made great efforts to understand and adopt the Qing courts' manner and culture, while trying to show God's presence both in all aspects of their life and artworks through mutual interactions with the Qing emperor and the Chinese people.

Although Jesuits' mission efforts in Qing court can be viewed as not so successful from the narrow perspective of conversions' rate, their cultural mission can be evaluated positively in that they made great efforts in understanding the culture of the mission fields and communicating mutually with people in that field based on their art theology. This case provides opportunity to reflect critically on Korean

protestants' cultural mission strategies which tend to implant the Korean cultural Christianity overseas.

Key Words: Jesuit, Art Mission, Giuseppe Castiglione, Qing Court Painter, Intercultural Mission

